

다포계 공포의 살미 변천에 관한 연구

- 내외 2출목 · 내외 3출목 공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Salmi* in *Dapo* Type *Kong-Po*(拱包)

- Focused on Inner and Outer Same *Chulmok*(出目) -

이 병 춘*

Lee, Byung-Chun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이 호 열

Lee, Ho-Yeol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Abstract

Integrated-Salmi can be suggested as a character of Da-po type Kong-po in Korea's traditional architecture. However, only few studies are made on this subject ye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gration process of Salmi through cases of certain Kong-po which have the same number of inner and outer Chul-mok and are also known to precede in tim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like below. First, Integrated-Salmi is more dominant in inner and outer 3 Chul-mok Kong-po than in inner and outer 2 Chul-mok Kong-po. Second, While inner and outer 2 Chul-mok prevail in Yeong-nam region, inner and outer 3 Chul-mok prevail in Ho-nam region. Third, integrated Salmi of Inner and outer 3 Chul-mok, first appeared in internal Jusangpo to be carried over to internal Juganpo then eventually to outer Salmi. Fourth, the reason why integrated form precede in internal salmi of inner and outer 3 Chul-mok Kong-po is due to 2 main factors. First of which is the impact of integrated Boaji that developed in Da-po type since the early 16th century. The second factor is downward expansion of Cho-gak's Boaji which was adopted to cope with disorders made in structure of Chum-Cha, due to inner and outer 3 Chul-mok type buddhist temples' wide reconstruction throughout Jeolla region follow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is study is to disclose the regularity of development process of Salmi's Cho-gak(草刻) which is a characteristic of Korea's Da-po type Kong-po.

주제어 : 다포계 공포, 내부살미, 일체형 살미, 지역성, 첨차구성 방식

Keywords: Dapo Type Kong-Po, Inner-Salmi, Integrated-Salmi, Locality, Formative Method of Chumcha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조선시대 다포계 건축은 사찰의 대웅전과 같은 주불전 및 궁궐의 정전이나 편전, 도성의 정문 등 건축적으로 높은 위계를 가진 건물에 적용되어 왔다. 비록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다포계 건물은 고려 말로 편년의 상한이 알려져 있지만 일부 학자들은 고려중기 이전에도 우리 고

유의 다포식 건축이 존재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¹⁾ 그러나 현존하는 다포계 건축은 임란 이전에 건축된 사례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임란이후에 증건된 것이어서 다포계 공포의 변천과정을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렇지만 그동안 공포에 관심을 가진 선학들의 연구로

1) 배병선은 봉정사 극락전 단집, 고려불화, 금동삼존불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고려중기 이전에 이미 다포계 공포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일제 관학자에 의한 다포계의 원대 도입설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배병선, 「다포계 맛배집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3

배병선, 「고려 다포계 건축유구와 동시대 중국 목조건축의 비교고찰」, 『미술사연구』, Vol. No. 25, 2011

* Corresponding Author : onzip@naver.com

8 논문

대략적인 건물의 건립년도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고려 말 1374년(우왕 1)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현존 최고(最古)의 다포계 건물인 연탄 심원사 보광전에서 조선 후기에 건립된 경복궁 근정전으로 이어지는 다포계 건축의 공포형식 변천 중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살미의 상하가 초각으로 연결되어 판상형을 이루는 ‘일체형 살미2)‘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체형 살미는 초기의 삼분두와 교두형, 또는 삼분두와 간단한 양서형으로 이루어진 살미에서 조선중기 이후 초각을 거쳐 연화형 살미로 변화하는 과정의 결과물로 알려져 있다3). 이렇게 연화형으로 초각된 일체형 살미는 같은 문화권에 속하는 중국이나 일본의 공포구성과는 다른 한국 다포계 건축의 고유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4).

따라서 교두형으로 마무리되어 침차형 살미를 유지해 오던 내부살미가 17-18세기를 거치면서 초각을 통해 일체화되는 변천과정을 밝히는 것은 한국적인 다포계 공포의 특징을 규명하는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5) 그러나 여기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그동안의 연구로 전통건축의 초각은 서남해안지역에서 활발하게 채용되어 왔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견해가 조금씩 다르지만, 17세기 후반 이후 조운을 통한 상업 활동으로 부를 축적한 선주들과 농법의 발달로 인한 부농들의 시주로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에6)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회적인 이유 외에 다포계공포의 구조적인 관점에서 초각이 전개되는 과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다포계 건물에서 내외출목수가 같은 건물은 내외출목수가 다른 건물보다 시기적으로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따라서 초각의 전개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외출목수가 같은 살미의 변화를 먼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다포계 건축에서 공포의 살미에 나타나는 변화양상을 먼저 고찰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살미의 다양한 변화 속에는 건축조영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믿으며, ‘소첨과 대첨’으로 구성되는 공포의 구성원리가 출목 수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알아봄으로써, 살미의 초각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유추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

다포계 공포 살미의 변천과정을 종합적으로 규명한 대표적 연구 성과로는 양윤식의 논문이 있다8). 양윤식은 논문에서 공포대의 변화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포의 내·외부를 분리하여 시기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살미의 변천과정 보다는 현재의 현상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의장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양윤식은 살미의 변천과정을 외부에서는 교두형에서 쇠서형, 초각쇠서형을 거쳐 연화쇠서형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하였으며9), 그 과정을 많은 도면과 도표로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이후 발표된 논문들도 대부분 양윤식의 주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10). 연구자도 그의 연구 성과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다포계 건물 중 내외 2출목과 내외 3출목의 공포로 구성된 건물을 대상으로 살미의 변화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대상 건물들은 모두 68동이며, 대부분 18세기 초반 이전에 중건된 건물이다. 그 중 내외 2출목은 39동, 내외 3출목은 29동이다. 연구대상은 <Tab.1>과 같다11).

2) ‘일체형’과 비슷한 용어로 ‘판상형’이 있다. ‘판상형’은 구조적인 의미가 강하고, 살미에서 ‘초각’이라는 특징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초각의 연결과 구조적 일체화를 뜻하는 “일체형”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3) 양윤식, 「조선중기 다포계 건축의 공포 의장」, 서울대 박사논문, 2000, p.143

4) 중국이나 일본건축의 공포구조는 하안이 발달하여 초각이 부분적으로만 사용되며, 무하양계 구조에서도 살미의 단부는 교두형을 유지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5) 中西章의 <斗形式からみた朝鮮多包系建築の變遷に關する研究>에서 살미첨차의 일체화는 17세기에는 건물정면에만 사용되고 측면과 후면에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6)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사』, 기문당, 2008, p.472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3, p.217

7)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3, p.208.
윤장섭, 『한국의 건축』,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pp.438-440
정인국, 『한국건축 양식론』, 일지사, 1974, p.74
이연노, 주남철, 「고려말 조선초 다포건축 공포의 결구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권 8호, 2003, p.173

8) 양윤식, 앞의 논문.

9) 양윤식은 연화형이 17세기에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지만 1720년대를 지나면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양윤식, 앞의 논문, p.155

10) 김홍주, 「18세기 사찰불전의 건축적 특성」, 연세대 석론, 2001
김영기, 「17-18세기주불전의 특성에 관한 연구」, 경상대 석론, 2009

11) 하양식인 완주 화암사 극락전과 문경 봉암사 극락전과 같이 단칸 건물로 주상포를 나타낼 수 없는 경우, 또는 주간포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중층 건물은 1층만 분석하였다. 진주 응석사 대웅전과 같이 출목이 변화된 사례(외1출목에서 2출목으로 보수)도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의 중건 시기는 수리실측보고서를 우선으로 하고, 기타 문화재청 자료와 백과사전 등 2차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중

Tab.1. Study list

번호	종목	명칭	중건, 보수년도	지역	공포 출목	내부		외부	
						외/내	주상	주간	주상
1	국보 제311호	안동 봉정사 대웅전	1435, 1601	경북 안동시	2*2	분	분	분	분
2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	1448, 1479	서울 중구	2*2	분/1	분	분	분
3	보물 제730호	울진 불영사 응진전	1578, 1716	경북 울진군	2*2	분	분	분	분
4	보물 제832호	영주 성혈사 나한전	1556, 1634	경북 영주시	2*2	분	분	분	분
5	보물 제823호	안성 석남사 영산전	1562, 1644	경기 안성시	2*2	분	분	분	분
6	보물 제141호	서울 문묘 대성전	1602	서울 종로구	2*2	분	분	분	분
7	보물 제212호	창녕 관룡사 대웅전	1617, 1749	경남 창녕군	2*2	분	분	분	분
8	보물 제1575호	성주향교 대성전	17c 중	경북 성주군	2*2	분/1	분	분	분
9	보물 제915호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	1618, 1678	충북 보은군	2*2	분	분	분	분
10	보물 제180호	여주 신륵사 조사당	1620, 1671	경기 여주군	2*2	분	분	분	분
11	보물 제181호	청양 장곡사 하대웅전	17c초, 1777	충남 청양군	2*2	분	분	분	분
12	국보 제67호	구례 화엄사 각황전	1699, 1768	전남 구례군	2*2	분	분	분	분
13	대구유형 제11호	대구 동화사 극락전	1622, 숙종년간	대구 동구	2*2	분	분	분	분
14	경기유형 제174호	안성 청원사 대웅전	16세기 중반	경기 안성시	2*2	분	분	분	분
15	경북유형 제184호	청송 보광사 극락전	1615	경북 청송군	2*2	분	분	분	분
16	경남유형 제194호	양산 통도사 극락전	18세기 초, 1758	경남 양산시	2*2	분	분	분	분
17	경남유형 제197호	양산 통도사 약사전	18세기 후반	경남 양산시	2*2	분	분	분	분
18	경북유형 제214호	경주 기림사 응진전	18세기	경북 경주시	2*2	분	분	분	분
19	경남유형 제252호	양산 통도사 불이문	조선중기이후	경남 양산시	2*2	분	분	분	분
20	충북유형 제125호	괴산 각연사 비로전	1648, 1899	충북 괴산군	2*2	분	분	분	분
21	대구문자 제16호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	1702	대구 동구	2*2	분	분	분	분
22	충남유형 제15호	당진 영랑사 대웅전	1678	충남 당진시	2*2	분	분	분	분
23	경북문자 제4호	경주 백률사 대웅전	17세기초	경북 경주시	2*2	분	분	분	분
24	보물 제1570호	청송 대전사 보광전	1672	경북 청송군	2*2	분	분	분	분
25	보물 제145호	예천 용문사 대장전	1597, 1665	경북 예천군	2*2	일	분	분	분
26	보물 제662호	완주 화암사 우화루	1711	전북 완주군	2*2	일	일	분	분
27	충남유형 제95호	공주 갑사 강당	17세기 중엽	충남 공주시	2*2	일	일	분	분
28	경기유형 제108호	안성 석남사 대웅전	1725	경기 안성시	2*2	일	일	분	분
29	대구유형 제7호	대구 파계사 원통전	1605, 1695	대구 동구	2*2	일	일	분	분
30	경북유형 제254호	포항 보경사 적광전	1677	경북 포항시	2*2	분/1	분	일	일
31	국보 제62호	김제 금산사 마륜전	1635, 1748	전북 김제시	2*2	일	일	일	일
32	보물 제826호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1624, 1707	전북 김제시	2*2	일	일	일	일
33	보물 제827호	김제 금산사 대장전	1635, 1748	전북 김제시	2*2	일	일	일	일
34	보물 제1771호	기장 장안사 대웅전	1654, 1744	부산 기장군	2*2	일	일	일	일
35	보물 제836호	청도 대적사 극락전	1676, 1754	경북 청도군	2*2	일	일	일	일
36	충남문자 제177호	예산 대련사 원통보전	1647, 1745	충남 예산군	2*2	일	일	일	일
37	경북문자 제113호	성주 선석사 대웅전	1684, 1725	경북 성주군	2*2	일	일	일	일
38	충남유형 제13호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18세기 중엽	충남 서산시	2*2	일	일	일	일
39	전남문자 제66호	화순 쌍봉사 극락전	18세기 중엽	전남 화순군	2*2	일	일	일	일
1	전남유형 제61호	순천 동화사 대웅전	1601, 1696	전남 순천시	3*3	분	분	분	분
2	보물 제790호	은혜사 백홍암 극락전	1643, 1685	경북 영천시	3*3	분	분	분	분
3	보물 제374호	산청 울곡사 대웅전	1679, 1746	경남 산청군	3*3	분	분	분	분
4	보물 제664호	창원 안심사 대웅전	1606, 1626	충북 청원군	3*3	분/2	분	분	분
5	경북문자 제321호	청도 적천사 대웅전	1664, 1694	경북 청도군	3*3	분/2	분	분	분
6	보물 제396호	여수 흥국사 대웅전	1690	전남 여주시	3*3	분/2	분	분	분
7	보물 제299호	구례 화엄사 대웅전	1636, 1700	전남 구례군	3*3	일	분	분	분
8	보물 제292호	부안 개암사 대웅전	1636, 1720	전북 부안군	3*3	일	분/2	분	분
9	보물 제1578호	전주 경기전 정전	1614, 1854	전북 전주시	3*3	일	일	분	분
10	보물 제608호	완주 위봉사 보광명전	17c 초	전북 완주군	3*3	일	일	분	분
11	보물 제356호	부여 무량사 극락전	1623, 1679	충남 부여군	3*3	일	일	분	분
12	보물 제825호	익산 송림사 보광전	1628	전북 익산시	3*3	일	일	분	분
13	충남유형 제143호	금산 보석사 대웅전	17세기, 1882	충남 금산군	3*3	일	일	분	분
14	충북유형 제56호	청주 보살사 극락보전	1683, 1872	충북 청주시	3*3	일	일	분	분
15	전북유형 제17호	진안 천황사 대웅전	숙종년간, 1874	전북 진안군	3*3	일	일	분	분
16	경북유형 제160호	의성 대곡사 대웅전	1605, 1687	경북 의성군	3*3	일	일	분	분
17	전남유형 제121호	진도 쌍계사 대웅전	1697	전남 진도군	3*3	일	일	분	분
18	전북유형 제51호	고창 문수사 대웅전	1653, 1764	전북 고창군	3*3	일	일	분	분
19	보물제803호	선운사 참담암 대웅전	1642	전북 고창군	3*3	분/1	분	일	일
20	경남유형 제238호	김해 은하사 대웅전	1649, 1801	경남 김해시	3*3	분	분	일	일
21	경북유형 제137호	영천 거동사 대웅전	17세기 후반, 1797	경북 영천시	3*3	분/2	분	일	일
22	보물 제824호	안성 청룡사 대웅전	1633, 1681	경기 안성시	3*3	일	분	일	일
23	보물 제290호	고창 선운사 대웅전	1614, 1682	전북 고창군	3*3	일	일	일	일
24	보물 제1243호	완주 송광사 대웅전	1636, 1814	전북 완주군	3*3	일	일	일	일
25	보물 제801호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1650, 18c 초	충남 공주시	3*3	일	일	일	일
26	보물 제1576호	김천 직지사 대웅전	1649, 1735	경북 김천시	3*3	일	일	일	일
27	충남유형 제79호	연기 비암사 극락보전	17세기	충남 연기군	3*3	일	일	일	일
28	대구문자 제43호	달성 소재사 대웅전	1673, 1857	대구 달성군	3*3	일	일	일	일
29	충남유형 제3호	금산 신안사 대광전	17세기 초기	충남 금산군	3*3	일	일	일	일

* 범례 : '일'은 일체형, '분'은 분리형, '분/2'는 2제공까지 살미첨차로 구성, '분/1'은 초제공까지 살미첨차로 구성

10 논문

다포계 공포는 한 건물에서도 전후의 위계와 건물의 중건, 보수 등으로 인해 다양한 공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에서는 각 건물의 공포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전면(前面)공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¹²⁾. 전면 공포라 하더라도 주상포와 주간포, 귀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위계와 정면성이 강조된 어칸의 주상포와 주간포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 논문의 주제가 다포계 공포에서 살미의 일체화과정을 유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제공에 나타나는 초각이나 연화초각은 같은 부류로 간주하였다.

연구방법은 지금까지 연구기관이나 논문에서 제시된 도면과 사진을 우선 활용하였다. 자료가 미비한 경우는 관련사이트의 검색과 현장 답사를 통한 사진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런 자료들로 살미의 유형을 분류한 다음, 각 출목별 살미에 나타나는 특징을 먼저 알아보려고 한다. 이후에는 내외2출목과 내외3출목 공포의 살미변화 양상에 보이는 특성과 지역성을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내부 살미의 일체화 과정에 잔존하고 있는 살미의 ‘침차구성 방식’에 대해 추론하고자 한다.

2. 내외2출목 · 내외3출목 공포의 살미

2-1. 용어 정의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내부 · 외부살미

일반적으로 ‘살미¹³⁾’는 침차와 직교하여 보방향으로 걸리는 공포부재를 통칭한다.¹⁴⁾ ‘내부살미’는 살미 중 주심에서 건물의 내부로 뻗어 나온 살미를 뜻하며, ‘외부살미’는 주심에서 건물의 외부로 뻗은 살미를 뜻한다. ‘살미침차¹⁵⁾’는 침차와 같은 모양의 살미를 말하며, 주로 고려시대 주심포계나 고식의 다포계 공포에서 볼 수 있다.

2) 삼분두위치 제공¹⁶⁾: 살미의 최상부에서 외목도리를
 요한 중수년도는 같이 표기하였다.

12) 양윤식은 건물의 공포에 대한 위계 중 ‘정면 강조형’이 가장 높은 구성비를 가지며 조선중기 다포계 건축의 특징이라 하였다. 양윤식, 앞의 논문, p.195

13) “살미”는 1600년대와 1700년대 중반까지 ‘沙乙尾’로 표기되고 1800년대부터 ‘山欄’로 나타나 고착된다. 김재웅, 「조선시대 영건의례의 목조건축용어에 관한 연구」, 조선대 박론, 2008, p.117

14) 김왕직, 『알기 쉬운 한국건축용어사전』, 동녘, 2007, p.121

15) 장기인, 『木造』, 보성각, 2004. p.177

16) 본 논문에서는 삼분두 제공의 형태보다 위치에 주목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 제공에 해당하는 의례의 용어로는 <華城城役儀軌>의 ‘한

감싸는 수장 폭의 작은 부재를 운공이라 하고, 운공 바로 아래에 놓이는 제공을 ‘삼분두위치 제공’이라 한다. 삼분두위치 제공은 최외단 출목의 소침과 결구되고, 외부에서는 운공과, 내부에서는 장여와 직교되어 결구된 ‘내부운공’과 초각으로 연결되게 된다. 초기 모습은 주로 ‘삼분두형’이며, 이후에는 삼분두에 초각이 조식되어 운공과 함께 초각이 시작되는 제공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¹⁷⁾ 따라서 삼분두 모양으로 대칭을 이루는 제공은 ‘삼분두위치 제공’의 초기 모습이라 할 수 있다. (<Fig.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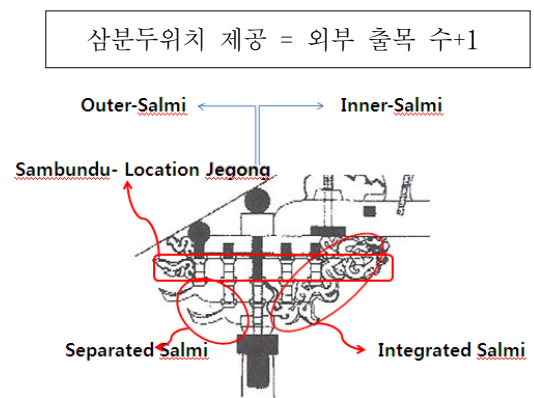


Fig.1 The terms of Kong-Po

3) 일체형 살미

일체형 살미는 상하의 모든 살미가 초각으로 일체화된 것을 말한다. 다포계 공포의 살미 초각은 운공과 삼분두위치 제공에서부터 시작되어 아래로 전개되는데, 내부 또는 외부살미가 초제공까지 모두 초각으로 연결되어 일체화가 된 것을 말한다. 한 건물에서 일체형 살미는 건물의 배면보다 전면에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조형에 드는 노동력도 크기 때문에 분리형 살미보다 위계가 높다고 할 수 있다.(<Fig.1> 참조)

4) 분리형 살미

살미가 내·외단 소로에 의해 상하가 분리된 경우를 말한다. 비록 개별 제공에 초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하로 연결되지 않았으면 분리형 살미로 보았다. 초제공 상부의 모든 제공이 초각으로 연결 되어 있어도 초제공이 교두형인 경우는 일체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간주하여 분리형으

대와 <仁政殿重修儀軌>의 ‘익공’이 있지만, 현재 ‘한대’는 귀한대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익공’은 익공식 공포의 부재와 혼동이 있을 수 있어 본 논문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굳이 대응하는 용어를 선택한다면 귀한대와 구별하여 ‘한대’를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17) 이우중은 여말선초 주심포계 쇄서외장을 하양의 변형된 유구로 보면서, 조선중기 다포계의 사두자리에 보이는 익공형 부재는 주심포계 쇄서외장과 상관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우중, 「고려시대 공포의 형성과 변천」, 서울대 박사논문, 2006, pp.171-172, 211

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분리형’과 ‘일체형’ 살미의 구분은 초제공과 2제공이 초각으로 연결되었는지 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Fig.1> 참조)

2-2. 내외 2출목 공포의 살미구성

연구대상 중 내외2출목 건물은 전체 68동 중 39동 (57.4%)이다. 내외 2출목의 공포는 주심포계나 다포계 건물의 공포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방식이라 할 수 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고려시대 주심포계 건물의 공포는 내외 2출목이며, 연구대상 건물에서도 시기적으로 임란이전에 중건된 건물로 알려진 안동 봉정사 대웅전을 비롯한 7동¹⁸⁾은 모두 내외2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다포계에서 내외2출목 건물이 내외3출목 건물보다 전통적으로 선호되었음을 뜻한다 할 수 있다. 연구대상 중 내외2출목 건물의 시기적인 분포를 보면 대부분 17세기 초기 이전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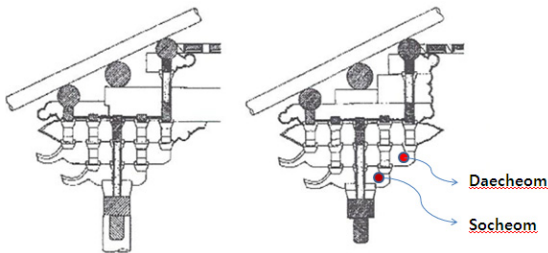


Fig.2 Kong-Po of Gwanryongsa Daeungjeon
<Left : Jusangpo (柱上包), Right : Juganpo(柱間包)>

내외2출목인 관룡사 대웅전의 공포<Fig.2>¹⁹⁾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형식의 공포 특징은 주간포에서 잘 나타난다. 초제공과 이제공은 분리형 살미로 구성되고 삼분두위치제공이 주심을 중심으로 내·외부에서 대칭으로 놓이며, 그 단부는 삼분두형이나 초각으로 장식(彫飾)된다²⁰⁾. 특히 내부살미를 보면, 초제공과 2제공은 교두형 ‘살미첨차’로서 소침 위에 대침이 놓이는 ‘첨차구성 방식’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내외2출목의 내부살미에 고식의

18) 안동 봉정사 대웅전, 서울 승례문, 울진 불영사 응진전, 영주 성혈사 나한전, 안성 석남사 영산전,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최근 연륜년대를 통해 중건년도가 임란이전으로 밝혀진 안성 청원사 대웅전이 있다.

19) 이 논문에 사용된 공포의 단면도 중 <Fig.2, 4, 5, 6, 10, 11, 12>는 양윤식의 논문 부록편에서 발췌한 것이다.

20) 양윤식은 그의 논문에서 ‘교두형’으로 명명된 이런 유형은 교두형 첨차위에 삼분두를 두는 유형과 삼분두 없이 초각형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음을 밝히면서 시기적으로 삼분두에서 초각으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양윤식, 앞의 논문, p.150. 이 논문에서는 계공 상하의 연결과정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개별 계공에 나타나는 삼분두와 초각은 같은 의미로 간주한다.

‘살미첨차’를 가지는 유형은 ‘첨차구성 방식’의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초제공과 이제공의 단부에는 초각이 장식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내외2출목의 살미구성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내외 모두 분리형을 이루는 경우로 39개소 중 24개소에서 나타났다. 이 유형은 출현빈도로 보아 내외2출목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Fig.2>

둘째, 살미구성에서 외부는 분리형, 내부는 일체형인 사례가 있는데, 화암사 우화루, 갑사강당, 석남사 대웅전, 파계사 원통전에서 볼 수 있다. <Fig.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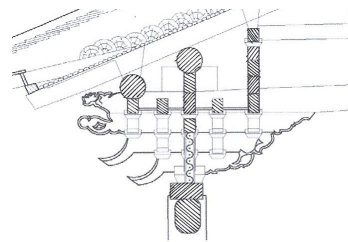


Fig.3 Jusangpo(柱上包) of Hwaamsa woohwaru

마지막으로 내·외부살미에서 모두 일체형을 보이는 사례는 9동으로 귀신사 대적광전²¹⁾, 금산사 미륵전, 금산사 대장전, 장안사 대웅전, 대적사 극락전,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대연사 원통보전, 선석사 대웅전, 쌍봉사 극락전이 이 유형에 속한다.<Fig.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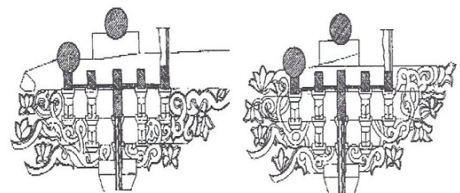


Fig.4 Kong-Po of Geumsansa Daejangjeon
<Left : Jusangpo (柱上包), Right : Juganpo(柱間包)>

반면, 포항 보경사 적광전의 경우는 외부에서는 일체형 살미로 구성된 반면, 내부에서는 분리형 살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위의 예들은 주간포와 주상포가 동일한 구성을 보이지만 예천 용문사 대장전은 주상포와 주간포의 살미구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용문사 대장전은 내부 주상포에서만 일체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포항 보경사 적광전, 청도 대적사 극락전의 경우

21) ‘귀신사 대적광전의 수리보고서’에 따르면 대적광전의 공포는 전면은 연화형 살미이고 후면은 하앙의 흔적이 있어 상이하고, 용척도 전후가 다름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전후 공포의 조성 시기가 다를 개연성이 많다. 문화재청, 『귀신사 대적광전 수리실측보고서』, 2005. p.242

12 논문

는 일체형으로 분류되지만, 전면 외부살미의 조각 연결이 뚜렷하지 않아 ‘일체형’으로 가는 과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²²⁾. 반면 김제 금산사 미륵전과 금산사 대장전, 귀신사 대적광전,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대연사 원통보전, 선석사 대웅전의 경우는 외부살미가 화려한 연화형 조각으로 일체형을 이루고 있는 사례로 보경사 적광전, 대적사 극락전과 비교된다.

2-3. 내외 3출목 공포의 살미구성

연구대상 중 내외3출목의 공포를 둔 건물은 총 29개 사례이다²³⁾. 내외3출목의 공포구성도 기본적으로 내외2출목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즉, 각 제공이 내·외부에서 중심을 중심으로 대칭하게 되며, 이때 ‘삼분두위치 제공’에 해당하는 사제공의 단부는 삼분두 또는 조각으로 처리된다.<Fig.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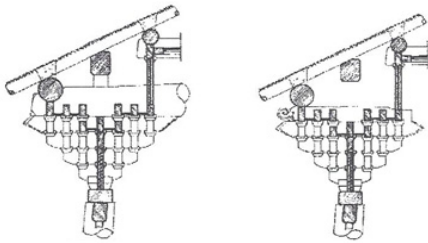


Fig.5 Kong-Po of Baekheungam Gukrakjion
<Left : Jusangpo (柱上包), Right : Juganpo(柱間包)>

하지만 내외3출목은 내외살미에서 내외2출목보다 변화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내외3출목의 살미구성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내외살미가 모두 분리형을 이루는 경우로 순천 동화사 대웅전, 백흥암 극락전, 율곡사 대웅전²⁴⁾, 흥국사 대웅전, 안심사 대웅전, 적천사 대웅전 등 6개동에서 볼 수 있다. 이 같은 구성은 내외2출목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었지만 내외3출목에서 나타나는 빈도는 상대적으로 적

22) 대적사 극락전은 1675년에 성해대사가 중창한 이후 1754년에 한응과 채징이 중수하였는데 상량문에 ‘외관을 이전보다 화려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문화재청·청도군, 『대적사 극락전수리보고서』, 2005, p.62

극락전의 배면 살미는 교두형으로 분리형이지만 전면은 연화로 조각된 일체형인 것으로 보아 전면의 살미는 중수 시에 추가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23)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이른 내외3출목 건물은 황해도 연탄 심원사 보광전으로 내외살미는 분리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삼분두위치제공의 내부 단부는 조각이 아닌 교두형 ‘살미첨차’로 마무리 되어 있다.

24) 이 유형은 외부살미도 교두형 첨차와 같이 마무리 되어 있으며,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영남 지역 공포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다.

둘째, 외부는 분리형 살미를 이루고 내부는 일체형 살미를 이루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전주 경기전 정전, 위봉사 보광명전 등 모두 10개 사례에서 확인된다. 빈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내외3출목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내외살미에서 모두 일체형을 보이는 사례는 고창 선운사 대웅전,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등 7동으로 내외3출목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빈도수를 가진다.

넷째, 주상포 내부살미만 일체형을 보이는 경우로 화엄사 대웅전, 개암사 대웅전 2동에서 확인 된다.<Fig.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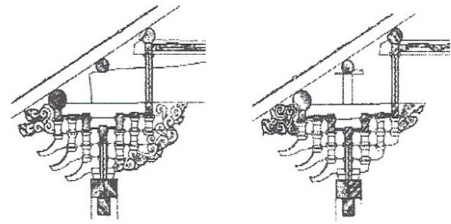


Fig.6 Kong-Po of Hwaomsa Daeungjeon
<Left : Jusangpo (柱上包), Right : Juganpo(柱間包)>

다섯째, 외부살미는 일체형을, 내부살미는 분리형을 보이는 사례도 3개동이 있는데, 영천 거동사 대웅전, 김해 은하사 대웅전²⁵⁾, 고창 선운사 참담암 대웅전 등이다²⁶⁾. 이런 구성은 외부살미가 일체형으로 구성될 때 내부살미도 일체형살미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유형과는 다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교두형 살미를 선호해왔던 지역적 특성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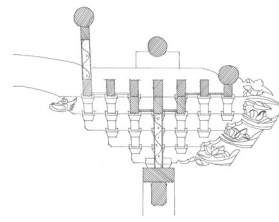


Fig.7 Jusangpo(柱上包) of Eunhasa Daeungjeon

이 외에 안성 청룡사 대웅전과 같이 주간포 내부살미에서만 분리형을 보이는 특이한 사례도 있는데, 이것은 빈번한 중수과정에서 나온 결과라 할 수 있다²⁷⁾.

외부살미가 일체형으로 분류된 11개동을 구체적으로

25) 은하사 대웅전 배면의 살미구성은 내·외부 모두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면에 비해 배면의 공포구성을 간략화 시키는 일반적인 수법과 달라 주목된다.

26) 이외에 마곡사 대웅보전 상층의 주간포(3*3)에서도 볼 수 있다. 이번 연구목록에서는 하층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27) 문화재 연구소, 『한국의 고건축18』, 1996

살펴보면 참당암 대웅전, 선운사 대웅전²⁸⁾, 완주 송광사 대웅전, 신안사 대광전의 경우는 외부살미가 연결형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연기 비암사 극락보전의 외부살미는 조각형으로 일체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동사 대웅전, 은하사 대웅전, 청룡사 대웅전, 마곡사 대웅보전, 직지사 대웅전, 소재사 대웅전은 연화형으로 일체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²⁹⁾.

3. 살미의 특징과 지역성

3-1. 살미의 특징

내외출목수가 같은 공포의 살미 특징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주심을 중심으로 대칭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삼분두 위치 제공’에서 조각이 시작되어 외부에서는 도리받침재인 운공과 연결되고, 내부에서는 내목 포벽의 하부장여와 직교하는 내부운공과 연결되는 것이 기본적인 공포구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내외2출목과 내외3출목의 주간포에 있는 분리형 내부살미는 대부분 이와 같이 기본적인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내외2출목·내외3출목 살미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출목별 살미구성 특징을 알아보려고 한다.

Tab.2 Classification of Salmi

살미위치	유형 구분	내외2출 (39동)		내외3출 (29동)		
		동	%	동	%	
내부	주상포	분리형	25	64.1	9	31.0
		일체형	14	35.9	20	69.0
	주간포	분리형	26	66.7	12	41.4
		일체형	13	33.3	17	58.6
외부	주상포	분리형	29	74.3	18	62.1
		일체형	10	25.7	11	37.9
	주간포	분리형	29	74.3	18	62.1
		일체형	10	25.7	11	37.9

먼저 출목 수에 따른 ‘외부살미’를 살펴보면, 주상포와 주간포에서 일체형과 분리형이 같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외부살미에서는 주간포와 주상포에서 살미구성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외부살미에서 분리형을 보이는 빈도는 내외2출목의 경우 38개 사례 중 29개 사례(74.3%), 내외3출목의 경우 29개 사례 중 18개 사례(62.1%)로 나타나 외부살미에서는 분리형 살미가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즉, 17세기는 분리형 외부살미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내외3출목을 중심으로 외부살미에서 일체형이 증가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내부살미’의 변화는 외부살미와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 주간포에서는 일체형 내부살미의 빈도가 주상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내외2출목의 주간포 내부살미에서 39개 사례 중 일체형이 13개 사례에서, 내외3출목에서는 29개 사례 중 17개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내외2출목 주상포 내부살미의 경우, 일체형이 39개 사례 중 13개 사례로 외부 주상포보다 2개 사례가 증가했지만, 내외3출목의 주상포 내부살미에서는 일체형이 크게 늘어나 29개 사례 중 20개 사례에서 나타났다. 또 주간포 내부살미에서도 일체형은 17개동으로 58.6%의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인다. 이것은 내외2출목의 경우는 주상포 내부살미에서 분리형이 64.1%로 주류를 이루지만, 내외3출목인 경우 주상포 내부살미에서 일체형이 69.0%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부살미의 일체화 현상은 상대적으로 고식이라 인정되는 분리형 외부살미(47개 사례)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그 특성은 더욱 뚜렷해진다.

Tab.3 Inner-Salmi classification in relevant to separated outer-Salmi

위치	유형	내외2출		내외3출	
		29동	%	18동	%
내부주상	분리형	24	82.7	6	33.3
	일체형	5	17.5	12	66.7
내부주간	분리형	25	86.2	8	44.4
	일체형	4	13.8	10	55.6

분리형 외부살미만을 기준으로 보면 일체형 내부살미의 빈도는 주상포에서 내외2출목은 17.5%로 상당히 낮은 반면 내외3출목은 66.7%로 매우 높다. 반면, 주간포 내부살미의 일체형은 내외2출목에서 13.8%, 내외3출목은 55.6%로 나타나고 있어, 주상포에 비해 일체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인다. 분리형 외부살미가 주로 17세기까지 나타나는 유형임을 고려할 때, 이런 사실은 17세기를 분리형 살미에서 일체형 살미로 조각이 전개되는 시기라 규정할 수 있으며, 내외3출목 공포가 외부살미 뿐만 아니라 내부살미에서도 일체화를 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 선운사 대웅전의 전면 외부살미는 연화형이 아닌 조각으로 일체형을 이루고 있지만 연결성이 적어 시기적으로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간포와 주상포의 살미도 통일성이 없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중건과 보수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문화재청, 『선운사 대웅전 실측조사보고서』, 2005. p.139

29) 양윤식은 공포 외부형태의 경우 시기적으로 교두형에서 쇠서형을 거쳐 조각쇠서형, 연화쇠서형으로 변한다고 보았다. 양윤식, 앞의 논문, p.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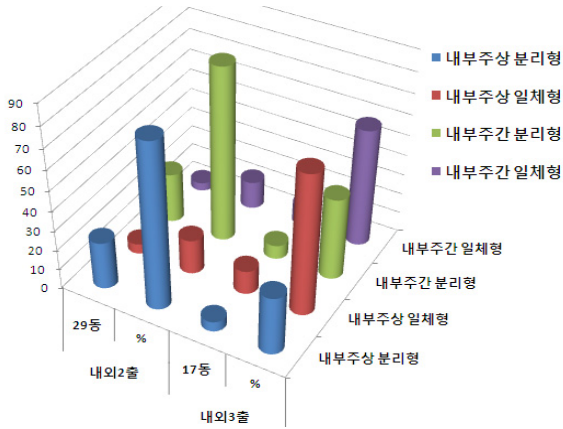


Fig.8 Chart of Inner-Salmi classification in relevant to separated outer-Salmi

내외2출목과 내외3출목 공포에 나타나는 살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체형 살미는 내외 2출목보다 내외3출목 공포에서 확연히 많이 나타난다. 둘째, 내외 2출목과 내외 3출목 공포에서 일체형 살미가 나타나는 빈도는 내부 주상포 > 내부 주간포 > 외부 주상포 = 외부 주간포의 순이다. 이는 일체형 살미는 건물 외부보다 내부에서, 주간포보다 주상포에서 더 많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교두형 살미침차가 초각으로 일체형 살미로 확장되는 시기는 17세기이며, 내외3출목의 내부살미가 그 과정을 선도하고 있다.

3-2. 살미에 보이는 지역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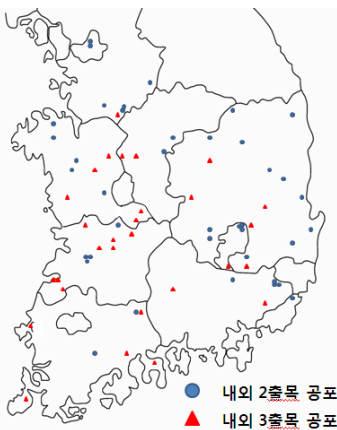


Fig.9 Distribution Map

표를 보면 내외2출목인 경우 경상도 지역에서 전체의 과반이 넘는 57.4%로 나타나고 있다. 내외2출목에 대한 총 건물 수 대비 구성비를 보면 경상도 지역에서 71.4%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보수성으로 대표되는 공포구성인 내외2출목 다포계 건물이 경상도 지역에서 가장 선호되었음을 뜻한다. 반면 경기도

지역에서도 내외2출목이 건물 수 대비 구성비가 85.7%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승례문, 문묘 대성진, 석남사 영산전, 신륵사 조사당, 청원사 대웅전 등 연구대상 중 시기적으로 앞선 17세기 초반 이전에 중건된 건물이 다수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Tab.4 Category of regional Salmi distribution

지역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합
총 건물 수	7	14	19	28	68
구성비(%)	10.3	20.6	28.0	41.2	100
내외2출목	6	7	6	20	39
구성비(%)	15.4	17.9	15.4	51.3	100
총 건물수 대비 구성비(%) ³⁰⁾	85.7	50.0	31.6	71.4	57.4
내외3출목	1	7	13	8	29
구성비(%)	3.6	25.0	44.8	28.6	100
총 건물수 대비 구성비(%)	14.3	50.0	68.4	28.6	42.6
외부 주상포 일체형	1	5	7	8	21
구성비(%)	4.8	23.8	33.3	38.1	100
총 건물수 대비 구성비(%)	14.3	35.7	36.8	28.6	31.3
내부 주상포 일체형	2	8	16	8	34
구성비(%)	5.9	23.5	47.1	23.5	100
총 건물수 대비 구성비(%)	28.6	57.1	84.2	28.6	50.0

반면 내외3출목인 경우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전라도 지역이 전체 구성비의 44.8%로 가장 높고, 총 건물 대비 구성비도 68.4%를 차지하고 있어 내외2출목과 비교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전라도 지역에서는 내외3출목이 가장 선호되던 공포유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외부 주상포 일체형을 보면, 경상도 지역에서 전체 21개동에서 8개동으로 가장 높은 빈도인 38.1%를 나타내고 있지만, 전체 건물 수 대비 구성비는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각각 35.7%, 36.8%로 경상도 지역의 28.6%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구대상인 68개동에서 외부 주상포 일체형은 21개동(31.3%)으로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17세기까지는 외부살미에서 여전히 분리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뜻한다 할 수 있다.

내부 주상포 일체형을 기준으로 보면 지역적인 특징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성비에서도 전라도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별 전체

30) 이 구성비는 각 지역별 전체 건물 수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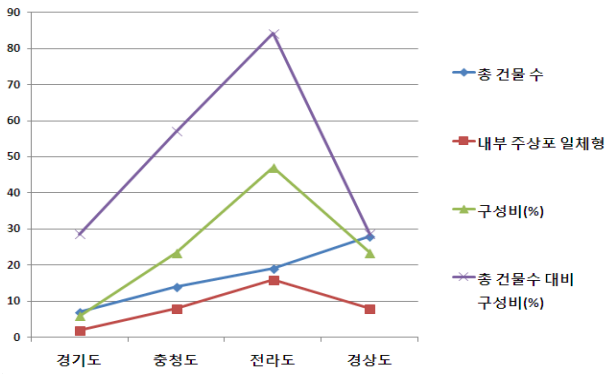


Fig.10 Regional Ratio of internal integrated Salmi, Jusangpo

건물 수 대비 구성비를 보면 84.2%로 나타나 전라도 지역에서 내부살미의 일체형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충청도 지역에서도 일체형 내부살미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라도와 충청지역의 지역적인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초각으로 일체화된 내부살미는 전라도와 충청도지방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4. 내부살미의 변천과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살미의 초각은 외부살미 보다는 내부살미에서, 내부주간포 보다는 내부주상포에서 선행하고 있다. 즉 살미의 일체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상포 내부살미의 초각전개 과정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내외2출목·내외3출목 주상포 내부살미의 초각 전개 과정은 보아지의 초각이 확장되는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다포계 건물인 연탄심원사 보광전(1374년)이나 성불사 응진전(1327년), 조선 초기 건물인 평양의 송인전(1467년), 보통문(1473년)에서는 교두형인 ‘살미첨차’가 보아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인 고려말에 건립된 수덕사 대웅전과 거조암 영산전 등 주심포계 건물에서는 이미 살미첨차가 아닌 ‘초각으로 일체화’된 보아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포계에서도 살미첨차가 초각된 보아지로 변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할 수 있다³¹⁾.

하지만 현존 유구에서 초각된 보아지를 확인할 수 있

31) 주심포계와 다포계의 장식적인 상호교섭에 대해서는 이미 윤장섭, 박연근, 김동욱, 이우종 등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 있었다. 윤장섭은 절충식으로 분류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이우종은 그의 박사 논문에서 ‘조선초기부터 일부 다포계 건물들이 주심포계와 장식적 경향을 공유하였고, 조선중기이후에는 주심포계에서 진행되던 장식초각의 구체화가 다포계에서도 크게 확산되었다.’고 하였다. 이우종, 「고려시대 공포의 형성과 변천」, 서울대 박사논문, 2006, p.210

는 최초의 다포계 건물은 조선 초기에 중건된 승례문³²⁾이다. 승례문의 주상포 내부살미를 보면, 하층의 경우는 보아지의 단부에 연화두식의 간단한 초각이 있고, 상층은 보아지의 내단이 삼분두형으로 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다포계의 보아지가 살미첨차에서 초각으로 변하는 초기과정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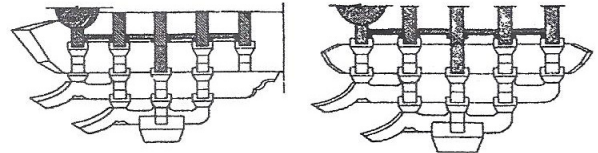


Fig.11 Kong-Po of Sungnyemun, 1F

<Left : Jusangpo (柱上包), Right : Juganpo(柱間包)>

‘삼분두위치 제공’이 초각된 보아지로 변한 후에는 확장성을 갖는 초각의 특성으로 인해 보아지가 아래로 확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확장과정에 나타나는 규칙성을 몇몇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내외3출목인 경우, 내외2출목보다 출목이 하나 늘면서 구조적으로 제공도 따라 하나가 더해지게 된다. 이때 주간포에서는 ‘삼분두위치 제공’인 4제공에서 초각이 이루어지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주상포에서는 3제공에서 초각이 시작된다.

<Fig.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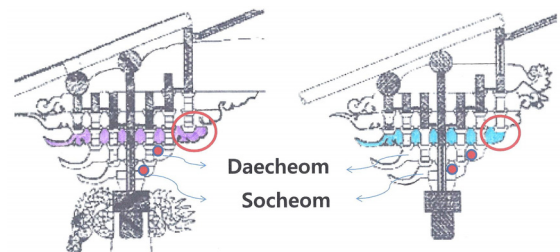


Fig.12 Kong-Po of Heungguksa Daeungjeon

<Left : Jusangpo (柱上包), Right : Juganpo(柱間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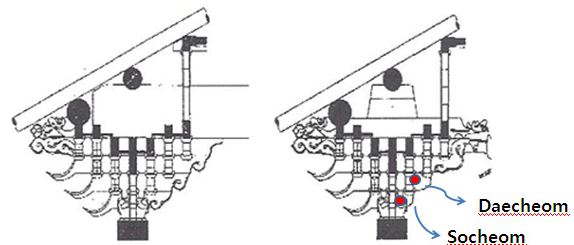


Fig.13 Kong-Po of Gaeamsa Daeungjeon

<Left : Jusangpo (柱上包), Right : Juganpo>

이는 보아지의 초각이 확장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초

32) 승례문 하층의 경우, 보가 ‘삼분두위치제공’과 같은 위치에서 결구되는 경우는 심원사 보광전, 석왕사 응진전 등 여말선초에 흔히 나타나는 기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선 후기 건물인 논산 쌍계사 대웅전,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창덕궁 인정전에서도 볼 수 있다.

제공과 2제공을 ‘살미침차’로 구성함으로써 전통적인 ‘침차구성 방식’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³⁾. 이런 사례는 내외3출목의 5개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홍국사 대웅전, 안심사 대웅전, 적천사 대웅전, 거동사 대웅전의 주상포와 개암사 대웅전의 주간포에서 볼 수 있다.

연구대상 목록은 아니지만 외1출·내2출목으로 구성된 강화 전등사 약사전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침차구성 방식’을 볼 수 있어 주목된다. 17-18세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등사 약사전³⁴⁾의 측면 주상포 내부살미에 나타나는 ‘소침과 대침’으로 이루어진 보아지의 모습은 조선 중기 이후까지도 건축 조영을 담당하던 장인들에게 내부살미에 대한 인식 근간에는 ‘침차구성 원칙’이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내외3출목의 5개동에서 볼 수 있는 소침과 대침의 ‘살미침차’, 그리고 전등사 약사전의 사례를 연관이 지어 본다면, 살미의 일체화 과정에는 ‘침차구성 방식’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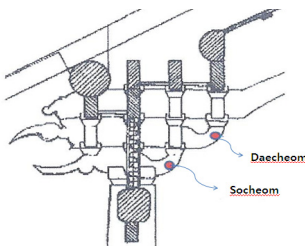


Fig.14 Jusanpo(柱上包) of Jeondeungsa Yaksajeon

결국 내외3출목의 전체 연구대상 29개동 중, 주상포와 주간포 모두에서, 초각이 ‘삼분두위치 제공’인 4제공에서 시작되는 순수한 분리형은 영남지역 공포구성 특징을 보이는 은해사 백홍암 극락전과 율곡사 대웅전과 순천 동화사 대웅전뿐이다.

내외2출목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삼분두위치 제공’인 3제공에 초각이 있으므로 침차구성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보아지가 아래 제공으로 확장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내외2출목에서 주상포 내부살미가 분리형인 사례는 모두 25

33) 중침의 형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연구사례가 없지만 침차의 구성으로 보아 내외3출목 공포의 구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로 층복 보은 법주사 권역을 중심으로 ‘중침’을 두면서 ‘침차구성 방식’에 부합하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전통적으로 계승된 소침과 대침의 ‘침차구성 방식’에 익숙하여 광범위하게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4) 전등사 약사전의 건립 기록은 확인할 수 없으나 여러 정황상 1621년 대웅전과 함께 건립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어 왔다. 2008년 정밀실측보고서에서는 약사전의 여러 가지 건축특성으로 미루어 대웅전과 같은 17-18세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화재청, 『전등사 대웅전·약사전 정밀실측 보고서(상)』, 2008, p.150

개 동이고, 주상포 내부살미가 초제공만 살미침차로 두고 이제공까지 초각으로 확장된 경우는 송례문과 성주향교 대성전, 보경사 적광전 등 3개 사례에서만 볼 수 있다. 내외 3출목에 비해 보아지가 확장되는 빈도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다포계에서 주상포 내부살미가 초각으로 일체화된 보아지 유형을 보이는 가장 이른 사례는 1557년에 증건된 건물로 1950년에 실화로 소실된 청평사 극락보전³⁵⁾이다. 이후에는 예천 용문사 대장전(내외2출목), 전주 경기전 정전(내외3출목) 등 임란전후에 증건된 건물의 주상포 내부에서 일체화된 보아지가 나타나고 있다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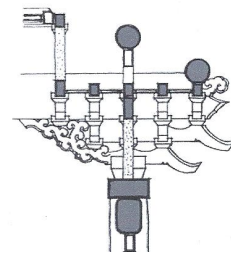


Fig.15 Jusanpo of Kong-Po, Cheongpyeongsa Geukrakjeon

이런 결과로 유추해 볼 때, 다포계 건물에서도 주상포 내부살미는 16세기 초반에는 이미 일체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체화된 내부살미가 임란 이전에는 널리 채택되지 않은 듯하다. 임란 이전의 건축 유구가 많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란 이전에 증건된 내외2출목에서는 청평사 극락보전, 용문사 대장전³⁷⁾ 외에 일체화된 내부살미가 나타나지 않고, 일체형 내부살미의 전개를 선도하고 있는 내외3출목도 1374년에 건립된 연탄 심원사 보광전 외에는 증건년도가 임란 이전으로 올라가는 건물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임란 이후에 증건되는 많은 건물들 중 앞에서 언급한

35) 춘천시, 『청평사 회전문 수리실측보고서』, 2002, p.39
보고서에서는 청평사 극락전의 소실년도를 1949년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동아일보 1950년 2월 15일자 2면에는 1월 29일에 방화로 불타고 하므로 1950년을 소실년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6) 임란 이전에 증건된 내외 출목 수가 다른 건물로는 서산 개심사 대웅전(1484년)이 외2출*내3출목으로 현재로선 유일하지만 임란직후에 증건된 창덕궁의 돈화문, 창경궁의 흥화문도 외2출*내3출목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임란 전에도 출목수가 다른 건물이 적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개심사 대웅전의 주상포 내부살미 구성은 분리형으로 구분 되지만, 초제공만 살미침차로 되고 이제공부터는 초각으로 되어 있어 있다.

37) 2003년 수리시에 행한 연륜연대 측정에서는 적심재의 별채년도가 1559년도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구조물은 년대를 확인 하지 못하여 증건년도를 확인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대장전 살미의 형식과 보의 단면에 고식의 잔형을 보이고 있어 증건시기는 임란 이전으로 추정된다.

‘첨차구성 방식’을 보여주는 살미의 사례는 몇 동에 불과하였다³⁸⁾. 이런 이유는 내부살미의 일체형이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임란이후 17세기 중기를 전후로 사찰의 주불전이 대량으로 복구되는데,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내외3출목 건물이 주로 조영되면서 주상포 내부살미의 초각이 아래로 전개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 17세기 후반에는 17세기 전반에 급하게 복구한 많은 불전들이 다시 대규모 중수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주심포계에서 일체화된 보아지의 영향, 16세기 초반부터 이어져왔던 다포계의 일체화된 보아지, 그리고 구조적인 장점으로 인해 내외3출목의 내부살미를 중심으로 일체화가 더욱 확대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³⁹⁾.

일체화된 주상포 내부살미는 주간포 내부살미로 확장하게 된다. 이런 배경에는 통일성을 추구하는 건축적인 조영 규칙과 불전의 내부장엄을 추구하는 시대적인 요구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일체화된 내부살미가 불전내부에서 통일성을 이루어 가는 시점에서 외부살미의 일체화도 진행된다. 금산 신안사 대광전, 여수 흥국사 대웅전, 선운사 참담암 대웅전 등과 같이 이미 외부살미에서 삼분두위치 제공과 운공의 초각연결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으며, 개별제공에서도 양서형에 초각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었다. <Fig.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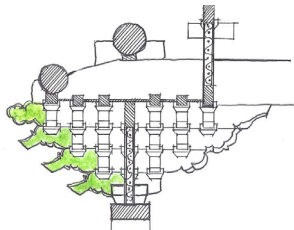


Fig.16 Jusangpo of Seonunsa Chamdangam, Daeungjeon

이런 과정도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내외2출목보다 이미 초각에 관대해진 내외3출목 건물에서, 지역적으로는 전라도와 충청도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17세기까지 내외동수 출목에서 일체화된 외부살미가 나타나는 비율은 분리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내외2출목의 경우 분리형 외부살미의 출현빈도는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 같은 사실은 외부살미에 있어

서는 전통적인 면을 강조하는 시각적인 보수성이 장식적인 면보다 여전히 영향력이 우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18세기 이후에는 내외출목의 증가가 보편화 되고, 내·외부살미에서 통일성이 요구되었으며, 일체화된 살미의 구조적인 이점이 추가되면서 연화초각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일체화된 살미가 공포구성에서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이 논문은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내외2출목과 내외3출목의 다포계 건물(68동)을 대상으로 살미의 일체화 과정을 고찰한 것이다. 우리나라 다포계의 특징 중 하나는 살미의 일체화라 할 수 있으며, 일체화된 살미는 분리형 살미보다 위계가 높아 건물의 전면에 일반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전면공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또, 살미의 일체화 과정이 주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시기적으로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내외출목수가 같은 건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대부분은 살미의 초각화가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라 할 수 있는 17세기의 유구들이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체화된 살미는 내외 2출목보다 내외3출목 공포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내외2출목 공포를 사용하는 지역은 영남 지방에, 내외3출목 공포를 사용하는 지역은 호남지방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또 건물 내외부에서 모두 일체형 살미가 사용된 건물은 호남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특징을 보였으며, 이는 공포 구성의 지역성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건물에서 일체형 살미가 나타나는 빈도는 내부 주상포 > 내부 주간포 > 외부 주상포 = 외부 주간포 순이었다. 이런 결과는 조선시대 다포계 공포의 초각이 내부 주상포에서 선행하였으며, 내부에서 외부로 전파되었음을 말한다. 그러나 외부살미에서 일체형을 나타내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17세기까지는 분리형 외부살미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내외3출목 주상포 내부살미에서 일체형이 진행되는 과정을 추정하면

1. 임란이후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내외3출목으로 불전이 다수 중건됨.
2. 내외3출목은 내외2출목에 비해 제공의 수가 추가되면서 내부살미에서 전통적인 구성법인 소첨과 대첨으로 구성되는 ‘첨차구성 방식’의 혼란이 생김.
3. 이런 혼란을 보완하고자 ‘삼분두위치 제공’ 아래로

38) 참고로 내외출목이 다른 내부살미에서 소첨과 대첨의 ‘첨차구성 원칙’을 보이는 사례는 장덕궁 돈화문(외2*내3)과 인정문(외2*내3), 해남 미황사 응진당(외3*내4) 등에서 볼 수 있다.

39) 대상목록에서 내외 일체형살미를 보이는 15동 중 ‘사면동일형’ 또는 ‘전후동일형’ 공포구성을 보이는 사례는 금산사 대장전과 신안사 대광전, 마곡사 대웅보전, 보경사 적광전 등 4동뿐이다. 이것은 전후살미에서 위계를 두는 것이 18세기의 일반적인 현상임을 감안하더라도 건물의 중수와 보수도 일체화된 살미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보아지 초각이 확장되면서 ‘첨차구성 원칙’을 유지.

- 16세기 이후 다포계에 나타난 일체화된 보아지의 영향과 구조적인 이점으로 인해 17세기 후반 이후 대규모 중수과정을 거치면서 일체형 내부살미가 주로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초각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시주층의 변화와 수운의 발달 등 사회적인 이유를 중심으로 보았다면, 이 연구는 다포계공포의 구조적인 관점에서 초각이 전개되는 과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앞선 유형이라 하더라도 내외출목수가 같은 건물로 대상을 한정된 문제점과 살미의 구성을 단순히 일체형과 분리형으로 대별함으로써 섬세한 변화상을 고찰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내외 출목수가 다른 건물의 살미변천에 대한 연구와 함께 초각의 전개에 대한 다양한 고찰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외3출목 공포가 경상도 보다 전라도 지역에서 선호된 이유를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중심포계와 다포계 공포의 상호교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같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적인 다포계 공포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References

1. Bae Byeong-Seon,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Style with Multi-cluster Brackets and a Gabled Roof』, Dep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3
2. Yang, Yoon-Sik, 『The Design of bracket sets in ‘Dapo’ style architecture in the middle Chosun era』, Dep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0
3. Lee Woo-Jong, 『The Formation and changes of bracket structures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in Goryeo period(10c~14c)』, Dep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6
4. Kim, Jae-Ung, 『A Study on the Architecture Terminology Used in Yeonggeon-euigwe in the Era of Joseon Dynasty』,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2008
5. Kim, Hong-Joo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Buddhist Halls of the 18th century, Chosun dynasty』 Dep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01

6. Kim, Young - Ggi, 『A Study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Buddhist Halls in Southern Area from the 17th to 18th Century, Chosun Dynasty』, Department of Architecture GraduateSchool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09
7. Bae Byeong-Seon, 『A Comparative Study on the Multi-clustered Bracket Structure in the Buildings of the Goryeo and the Contemporaneous Chinese Dynasties』, Journal of Art History, Vol. No. 25, 2011
8. Lee, Yeon-Ro, Joo, Nam-Chull, 『A study on the constructive traits of Dapo building’s Kongpoe from late Koryo to early Chosun dynasty』,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19, No.8, 2003
9. Kim, Dong-Uk, 『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Gimundang, 2003
10. Yoon, Chang-Sup, 『Korean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11. Chung, In-Guk, 『Theory of Korean Architectural Style』, Iljisa, 1974
12. Kim, Wang - Jik, 『Dictionary of Korea Traditional Architecture』, Dongnyeok, 2007
13. Chang, Ki-In, 『Wooden Structure』, Boseonggak, 2004
14.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 Scrutiny Repair Report of Gwisinsa Daejeokgwangjeon』, 2005
15.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 Scrutiny Report of Seonunsa Daeungjeon』, 2005
16.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 Scrutiny Report of Jeondeungsa Daeungjeon · Yaksajeon』, 2005
17.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eongdogun 『A Scrutiny Repair Report of Daejeogsa Geuglagjeon』, 2005
18.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Korea’s traditional architecture 18 (Cheonglyongsa Daeungjeon), 1996
19. Jung-gu, Seoul, 『A Scrutiny Report of Sungnyemun』, 2005
20. Chuncheonsi, 『A Scrutiny Repair Report of Cheongpyeongsa Hoejeonmun』, 2005

접수(2013. 4. 15)

수정(1차: 2013. 7. 25)

게재확정(2013. 8. 5)